

##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Optimism,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s Optimism and  
The Effects on a Child Subjective Well-being\*

주지영(Ji Yeong Joo)<sup>1)</sup>  
박성연(Seong Yeon Park)<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th model of mothers' optimism, parenting behaviors and a child's optimism and the effects on their child's subjective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31 pair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from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Data were gathered via four questionnaires on mothers' optimism reported by mothers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child optimism, and child subjective well-being as reported by the children. Data were analys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19.0. The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the hypothesized model yielded an acceptable model fit and most of the hypothesized path coeffici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mothers' optimism and parenting behaviors influence their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directly through children's optimism. It is concluded that the more optimistic the mothers, the more likely the children themselves will share that optimism and in turn, they will also have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명예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 Yeong Joo,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wnwldud209@naver.com

**Key Words** : 어머니의 낙관성(mothers' optimism),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아동의 낙관성(children's optimism),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 I. 서론

현대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고 물질적 삶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비단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방정환재단(2010)이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를 유니세프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발달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흔히 나타나던 자살이나 우울증이 초등학생에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계청, 2010), 아동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이나 안녕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 개인의 행복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개인당 평균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삶의 물질적 측면만을 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모두 합해도 주관적 삶의 질에 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사회적 지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다(Campbell, Converse, & Rogers, 1976; Myers & Diener, 1995)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되돌아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종합한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개인의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뜻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Emmons & Diener, 1985).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나 친밀한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부모관련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민주적인 양육태도, 부모의 정서적지지, 친밀한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부모 변인이 아동의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10; Kwon, 2008; Lee & Lee, 2007).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더 높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Cheng & Furnham, 2004),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반면 부모의 거부,

통제, 무관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높다(Kim, Kwon, & Jeon, 2006; Maccoby & Martin, 1983; Shek,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안녕감을 비롯해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인 적응, 탄력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향성, 자존감, 개인적 통제감 그리고 낙관성과 같은 성격요인이 강조되고 있다(Scheier & Carver, 1985). 이중에서도 특히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성격적 특성, 성향적 낙관성(Dispositional Optimism)으로 정의되는(Scheier & Carver, 1992) 낙관성은 개인의 적응과정 및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되어져 오고 있다(Doh & Lee, 2008).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이 처해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낙관적 사고를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높아지며,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인 우울수준은 낮아진다(Yoon, 2007). 또한 낙관적인 아동들은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과 중요생활사건의 적응, 긍정적 자기 지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등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이 비관적인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Aspinwall & Talor, 1992; Kim & Lee, 2007; Shin, 2005; Yu & Bang, 2011).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개인의 성격특성 중 하나인 낙관성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낙관성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Seligman(1991)은 유전과 환경적 요소 모두 아동의 낙관성 발달에 영

향을 주며 이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낙관성을 촉진하는 부모의 영향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낙관적 성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유전적 요인과, 부모가 아동에게 낙관적 사고를 물려줄 양육환경을 제공하였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Scheier & Carver, 1993; Seligman, Reivich, Jaycox, & Gillham, 2007). 먼저 아동의 낙관성이 유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는 성격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MeGue & Lykken, 1992) 부모의 낙관적 성향 자체가 높을수록 아동의 낙관적 성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 Kwak, 2007; Ha & Kim, 2011; Kim & Lee, 2007). 그러나 아동의 낙관성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환경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즉 부모가 일관되고 적절한 양육행동, 긍정적 강화와 지지를 보일 때 자녀의 낙관성이 발달한다(Ha & Kim, 2011; Jackson, Pratt, Hunsberger, & Pancer, 2005; Kim, 1996).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결여되거나, 부모가 부정적인 경험, 비밀관적이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도식이 형성되고, 비관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Choi & Kwak, 2007; Hjelle, Busch, & Warren, 1996).

위에 기술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낙관성을 촉진시키며, 이렇게 형성된 아동의 낙관성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낙관성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드물며, 그나마 대부분 성인, 대학생 그리고 만성질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낙관성이 심리적 적응이나 안녕감 또는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Chai, 2011; Kim, 2008).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는 있으나, 이들은 부모의 낙관성과 아동의 낙관성 간의 관계(Chris & Adrmin, 1996; Ha & Kim, 2011)나 아동의 낙관성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Fischer & Leitenberg, 1986; Kim & Lee, 2007; Peterson, Seligman, & Vaillant, 1988; Snyder, *et al.*, 1997; Yu & Bang, 2011; Yoon, 2007) 등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선행변수로 낙관성과 같은 개인의 성격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또는 양육의 영향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요인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 구조적 관계나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낙관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을 선행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선행변인들과 아동의 낙관성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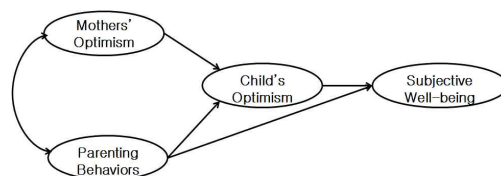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낙관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가정한 이론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Seligman(1991)은 부모의 낙관적 사고와 비관적 사고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표현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양육행동은 결국 자녀의 낙관적 사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즉, 어머니의 낙관성은 아동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나아가 아동의 낙관성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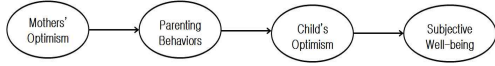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긍정적 정서표현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자녀관과 양육관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Han & Hong, 2000; Song, 2006)와 어머니의 낙관성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머니 말투나 표정을 통해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Kim, 2006)로도 뒷받침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낙관적 성향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의 안녕감을 더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론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안모형으로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낙관성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인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어머니 낙관성 및 양육행동은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낙관성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ure 1> Hypothesized model



<Figure 2> Alternative model

원 이상, 200~399만원, 200~39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가정은 교육수준, 월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통계청, 2010)<sup>1)</sup>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아동 총 331명(남아 165명, 여아 166명)과 그들의 어머니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서울시 J구에 위치한 2개의 초등학교 5,6 학년을 선정하여 각 학교장의 동의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배부 후 10일 이내에 회수되었으며,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40부가 회수되어 약 81%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331부를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10.4( $SD = .64$ )세이며, 연구대상 아동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2.2( $SD = 4.41$ )세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이 15.1%, 고등학교 졸업이 8.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9.9%였던 반면, 취업모는 54.7%로 나타났으며 직업 내용으로는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가 3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과 전문직이 각각 8.8%,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정의 월소득 수준은 400~499만원이 4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0만

###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낙관성은 어머니 보고로 측정되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은 모두 아동보고로 측정되었다.

#### 1) 어머니의 낙관성

어머니의 낙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LOT-R(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을 Yeom(1998)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LOT-R은 성향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6개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4개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허위문항(filler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다시 3개의 긍정적 기대 문항과 3개의 부정적 기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긍정적 기대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이며, 부정적 기대는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등이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1)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중산층의 기준은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 중 월 평균가처분 소득 151만~453만원인 가구로, 조세와 3대 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평균 26.5%임을 반영하면, 세전 수입으로 월 205~818만 원인 가구.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부정적 기대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긍정적 기대 .93, 부정적 기대 .95 이었고, 전체 Cronbach's  $\alpha$ 는 .97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 (1995)이 개발한 양육행동검사 80문항을 축소하여 Kim(2003)이 30문항으로 구성하여 만든 ‘아동용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거부·제재, 온정·수용, 허용·방임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거부·제재 12문항, 온정·수용 10문항, 허용·방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거부·제재의 경우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수용의 경우 ‘내가 어머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신다’ 등이 있고, 허용·방임의 경우 ‘내가 조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사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해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긍정적 의미로 이해하기 위해 역 채점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같은 양육행동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거

부·제재 .84, 온정·수용은 .91, 허용·방임은 .63이었고,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3) 아동의 낙관성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ydney, Hadlay, Allen, Palmen, Klosky, Deptula, Thomas와 Cohen(2005)의 YLOT(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를 Kim과 Lee(2007)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YLOT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로서 낙관성 측정 문항 12개와 허위문항(filler item)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은 다시 6개의 긍정적 기대 문항과 6개의 부정적 기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긍정적 기대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이며, 부정적 기대는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등이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부정적 기대 문항은 역채점 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긍정적 기대 .83, 부정적 기대 .85이었고,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4) 주관적 안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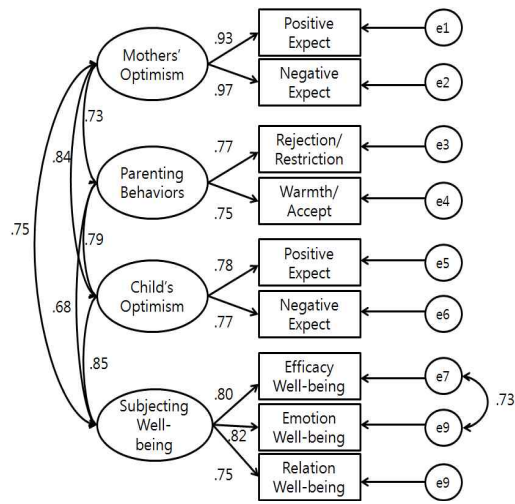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과 Song(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1984, 1996)와 Diener와 동료들(2004), Ryff(1989), Ryff와 Keyes(1995)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여 만든 Bak과 Hong(200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로 정

적 효능안녕, 부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부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 부적 관계안녕의 6개 요인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요인인 정적 효능 안녕(4 문항), 정적 정서 안녕(4문항), 정적 관계 안녕(4 문항)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효능안녕은 ‘나는 일단 맡으면 제대로 해낸다’, ‘나는 매사를 잘 처리할 자신이 있다’ 등이 있고, 정서안녕은 ‘나는 삶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가 있고, 관계안녕은 ‘나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등이다. 각 문항들은 6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6 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어 주관적 안녕감의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요인별로 효능 안녕 .81, 정서안녕 .90, 관계안녕 .76 이었고,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조사 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Figur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or 9 variables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인 어머니의 낙관성,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우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2단계 접근 방법(Anderson & Gerbing, 1988)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구조모형에 대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chi^2$  값의 차이와 RMSEA, AIC 지수를 고려하여 가장 간명한 모형을 선택한 후, 구

<Table 1>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N = 331)

	$\chi^2$	df	NFI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149.65	48	.95	.93	.95	.08
Modified model A	110.43	38	.95	.95	.97	.08
Modified model B	77.22	37	.96	.97	.98	.06
A : B	$\chi^2B - \chi^2A = 33.21$		$dfB - dfA = 1$		$p = .000 < p = .001$	

Note.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approximation

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 III. 결과 분석

#### 1. 측정모형 분석

이론모형(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어머니의 낙관성, 양육행동, 아동의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하위변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서 보듯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49.65(df = 48)$ , NFI = .95, TLI = .93, CFI = .95, RMSEA = .08으로 나타났다. 이는 NFI, TLI, CFI 모두 .90을 넘어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만 RMSEA는 .05 이하가 되지 않아 적합도가 좋은 모형의 지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인 허용·방임의 요인부하량( $\beta$ ) 값이 .27로 변수를 측정하는데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허용·방임 하위요인을 삭제한 후 모형을 수정(수정모형A)하여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110.43(df = 38)$ , NFI = .95, TLI = .95, CFI = .97, RMSEA = .08으로 나타나 이 모형 또한 RMSEA 지수가 .05 이하가 되지 않아 적합도가 좋은 모형의 지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오차변량 간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값을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본 분석 결과에서 수정지수가 .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효능안녕(e7)과 주관적 안녕감-정서안녕(e8)에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공분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차항에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

을 수정(수정모형B)하였다. 그 결과  $\chi^2 = 77.22(df = 37)$ , NFI = .96, TLI = .97, CFI = .98, RMSEA = .06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적합도 준거기준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NFI, TLI, CFI가 .90을 넘을 경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Hong, 2000), RMSEA는 .0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 .10 이하는 보통 모형이며 .10보다 크면 적절하지 못한 모형으로 평가(Browne & Cudeck, 1993)할 때 본 모형은 적합도 준거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수정모형 A와 수정모형 B 간  $\chi^2$  수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 = 33.21$ ,  $\Delta df = 1$ 로  $df$ 가 1 감소하였으나 수정모형 B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hi^2$  을 33.21 만큼 얻게 되었고, 수정모형 A와 B 사이에  $\chi^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수정모형 B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최종 수정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ure 3과 Table 2에서 보듯이 모든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75~.97로 나타나 그 값이 유의미<sup>2)</sup>하였으며, 측정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낙관성 및 긍정적 양육행동과 매개변인인 아동의 낙관성 그리고 종속변인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방향성이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가 .40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함(Song, 201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models (N = 331)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beta$	SE	C.R	p
MO	Negative expect	1.00	.93			
	Positive expect	.94	.97	.03	31.09	***
PB	Rejection/restriction	1.00	.77			
	Warmth/accept	1.38	.75	.12	11.51	***
CO	Negative expect	1.00	.77			
	Positive expect	1.13	.79	.08	14.54	***
SW	Efficacy well-being	1.00	.80			
	Emotion well-being	1.33	.82	.10	13.25	***
	Relation well-being	1.15	.75	.08	12.21	***

Note. MO=Mothers' Optimism, PB=Parenting Behavior, CO=Child's Optimism, SW=Subjective Well-being  
 \*\*\*p < .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N = 331)

	1	2	3	4
1	-			
2	.61**	-		
3	.71**	.59**	-	
4	.70**	.61**	.69**	-

Note. 1 = Mothers' Optimism, 2=Parenting Behavior, 3=Child's Optimism, 4=Subjective Well-being  
 \*\*p < .01.

## 2.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이론모형과 대안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연구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인과적 효과 분해를 살펴보았다.

### 1) 연구모형 선택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이 낙관

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모형으로 이론모형과 함께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하여 각 모형 간의  $\chi^2$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듯이 두 모형 모두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chi^2$  값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 B  $\rightarrow \Delta\chi^2 = 27.22, \Delta df = 2, p < .001$ ). 또한 본 결과에서 이론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낮은 AIC 지수<sup>3)</sup>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와 AIC 지수를

3)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에 최대한 도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간명성이 우수한 모형을 알려주는 지수(Kim, 2007).

<Table 4> Comparison among structural models of mothers' optimism, parenting behavior, child's optimism with subjective well-being outcomes ( $N = 331$ )

	$\chi^2$	$df$	Q ( $\chi^2/df$ )	NFI	TLI	CFI	AIC	RMSEA (LO90~HI90)
A	117.61	48	2.45***	.95	.96	.97	201.61	.07(.05~.08)
B	144.83	50	2.90***	.93	.94	.97	224.83	.08(.06~.09)
A : B		$\chi^2 B - \chi^2 A = 27.22$		$df B - df A = 2$		$p = .000 < p = .001$		

Note. A : Hypothesized model B : Alternative model

\*\*\* $p < .001$ .

<Table 5> Parameter estimates of structural model ( $N = 331$ )

Parameter	B	$\beta$	S.E	C.R	$p$
MO( $\zeta_1$ ) → CO( $\eta_1$ )	.37	.57	.05	7.13	***
PB( $\zeta_2$ ) → CO( $\eta_1$ )	.64	.38	.15	4.26	***
PB( $\zeta_2$ ) → SW( $\eta_2$ )	.01	.01	.20	.04	.966
CO( $\eta_1$ ) → SW( $\eta_2$ )	.93	.93	.13	6.99	***

Note. MO=Mothers' Optimism, PB=Parenting Behavior, CO=Child's Optimism, SW=Subjective Well-being

\*\*\* $p < .001$ .

고려한 결과 이론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임이 판명되어 이론모형을 최종적인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 2)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4에서 보듯이  $\chi^2$  값이 117.61( $df = 48$ ), NFI = .95, TLI = .96, CFI = .97, RMSEA = .07(.05~.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Table 5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로계수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외생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내생변수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계수는 .005( $p = .97$ )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모형 변인들 간의 인과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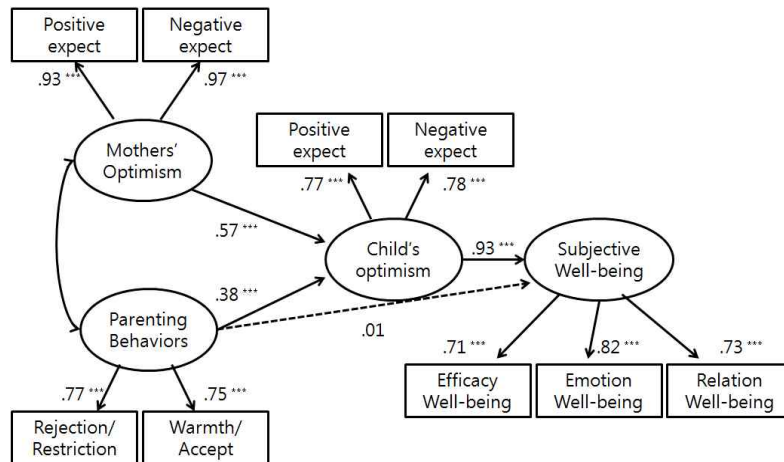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이론모형에 대해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듯이 어머니 낙관성은 아동의 낙관성을 거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하게 간접적인 영향( $\beta = .53, p < .01$ )을 미쳤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아동의 낙관성을 통해 주관적

<Table 6> Effects decomposition for a structural model (N = 331)

Parameter	Standardized			SMC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MO( $\zeta_1$ ) → CO( $\eta_1$ )	.57*	-	.57*	.79
PB( $\zeta_2$ ) → CO( $\eta_1$ )	.38**	-	.38**	
MO( $\zeta_1$ ) → SW( $\eta_2$ )	-	.53**	.53**	.86
PB( $\zeta_2$ ) → SW( $\eta_2$ )	.01	.35**	.36*	
CO( $\eta_1$ ) → SW( $\eta_2$ )	.93**	-	.93**	

Note. MO=Mothers' Optimism, PB=Parenting Behavior, CO=Child's Optimism, SW=Subjective Well-being  
\* $p < .05$ , \*\* $p < .01$ .



<Figure 4> Estimated of standardized parameter for the structural model

안녕감( $\beta = .35, p < .01$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낙관성에 의해 매개되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효과(.35)를 주는 상대적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낙관성에 의해 매개되어 주관적 안녕감으로 가는 간접효과(.53)가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모형에서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생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낙관성, 양육행동, 아동의 낙관

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가 .86 이었다. 이는 본 모형의 경로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86% 설명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낙관적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낙관적 성향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두 번의 수정을 통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사이에 이론적 배경의 근거한 논리구조가 확인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동의 낙관적 성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낙관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낙관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 모형과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낙관성 및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인 대안모형을 비교하여, 적합도의 지수가 가장 양호하고 간명한 모형인 이론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연구변인인 어머니의 낙관성 및 양육행동은 아동의 낙관적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낙관적 성향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우선 어머니의 낙관성은 아동의 낙관성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적인 부모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사고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아동으로 하

여금 안녕감과 긍정적인 심리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cheier & Carver, 1993; Seligman, 1991)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낙관적 성향은 아동의 낙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인 아동은 효능, 정서,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자신의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낙관성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상호작용, 일관적 태도가 자녀의 낙관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고와 도식을 형성시키며,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jelle, Busch, & Warren, 1996; Kim, 2010; Kim & Lee, 2007)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의 낙관성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인 아동은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낙관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아동의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낙관적 성향이 높은 아동이 실제로 아동 스스로가 지각하는 정서, 효능, 관계적 측면에서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높은 수준의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Diener *et al.*, 1999; Gwon, 2009; Peterson *et al.*, 1988)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

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 스스로의 안녕감과 행복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다고 나온 연구 결과들과(Cheng & Furnham, 2004; Plunkett *et al.*, 2007; Sheck, 2007)과는 불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확연히 줄어드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되나 이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단순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 $r=.61$ ,  $p<.01$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간접효과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의 낙관성에 의해 발생한 간접효과인 매개효과가 더욱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예측 변인이었다면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격요인, 즉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아동의 성격요인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앞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경로가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낙관성을 통해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서는 아동의 낙관적 성격이 중요한 요인인 한편,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 역시 중요하다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학령 후기 남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낙관적인 성격특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자료의 대부분은 아동의 지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한계를 지닌다. 둘째, 연구대상이 서울에 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안녕감을 위해 개인적 요인인 낙관성과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하였지만, 여전히 다루지 못한 여러 중요한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매개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측정 오차를 통제하기 위하여 검증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지만,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의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서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의 주요 주제인 낙관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아동에게 적용하여 연구한 점이다. 그 동안 낙관성과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적용한 연구는 그 대상이 임상집단,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학 분야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일 수 있는 ‘안녕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안녕감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연구대상의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만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아동의 낙관성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머니의 낙관성, 양육행동 및 아동의 낙관성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그 동안 이들 변인들이 주로 스트레스, 우울과 문제행동 등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에 주목하던 것에서 벗어나 아동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Bak, B. G., & Hong, S. P.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159-175.
- Bak, B. G., & Song, J. H. (2007). Multidimensional 2 × 3 factor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591-61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 Bollen Ka, et al., editor.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CA) : SAGE publication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 and satisfactions*. NY : Russell sage foundation.
- Chai, J. H. (2011). The effects of optimism and repressive cop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ealth management behavior in people with chronic ill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Cheng, H., & Furnham, A. (2003).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1-21.
- Cho, S. Y., Shin, H. Y., Chai, M. S., & Chai, H. Y. (2009). Surve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129-144.
- Cho, Y. K. (2011). Relationship of maternal attachment to school adjustment : the impact of optimism as a mediator. Unpublished

- master's thesis, Kyeonggi University, Kyonggi, Korea.
- Choi, S. Y., & Kwak, K. J. (2007).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in young children :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59-84.
- Chris, R. B., & Adrian, F. (1996). Intergenerational links and positive self-cognition : parental correlates of optimism,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elf-evalu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3), 247-263.
- Csikszentmihalyi, M., & Hunter, J. (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185-19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oh, I. J., & Lee, Y. H. (2008).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on subjective well-being. *Human life science*, 11, 97-109.
- Emmons, R. A., & Diener, E. (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Fischer, M. B., & Leitenberg, H. (1986). Optimism and pessimism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241-248.
- Gwon, S. M.(2009). **Positive psychology**. Seoul : Hakjisa.
- Ha, Y. M., & Kim, H. J. (2011). The influence of parents' optimism on child's optimism : A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positive reinforcement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2), 283-307.
- Han, J. H., & Hong, K. O. (2000). Maternal self-perception profile and parenting behaviors : mothers for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7(1), 85-111.
- Hart, C. H., Nelsom, D. A., Robinson, C. D.,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ong, S. P. (2010). The study on the school burnout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gifted, the potential gifted, and the regular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9(1), 75-96.
- Hjelle, L., Busch, E., & Warren, J. (1996). Explanatory style, dispositional optimism, and reported parental behavior. *Department of psychology*, 157(4), 489-499.
- Jackson, L. M., Pratt, M. W., Hunsberger, B., & Pancer, S. M.(2005). Optimism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uthoritativ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 Finding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Social development*, 14, 273-304.
- Kim, H. H. (1996).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s self-concept and emotional trait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S. (2008). The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controllability perception of risk situations : The roles of stress coping and benefit-finding as medi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M. (2010).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 as intermediation with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Kim, M. J. (2003).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S. (2006). Effect of mother's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s resilience.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9, 145-170.
- Kim, J. Y., & Lee, J. Y. (2007). Effect of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on child's adaptability in school : with child's optimism as a medi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Kim, W. K., Kwon, H. K., & Jeon, J. A. (2006).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depression, self efficacy, and problem solving in elementary.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67-79.
- Kim, Y. H.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Lee, J. Y., & Kim, N. Y. (2009).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teenagers worr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2), 91-104.
- Kwon, E. K.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s self-resil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ee, J. M., & Lee, Y. H. (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0(4), 33-58.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1-102). NY : Wiley.
- McGue, M. & Lykken, D. T.(1992). Genetic influence on risk of divorce. *Psychology & developing societies*, 3, 368-372.
- Moon, M. Y. (2001).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rising attitude on children's behavior of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Myers, D. B.,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orem, J. K., & Chang, E. C. (2000). A very full glass : adding complexity to our thinking about



- th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optimism and pessimism research. In : Chang EC(ed.). *Optimism and pessimism :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47-367.
- Peterson, C., Seligman, M. E., & Vaillant, G. E. (1998).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is a risk factor for physical illness : A thirty-five-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3-27.
-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C., Behnke, A., & Falcon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6), 760-772.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 Knopf.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ligman, M. E. P., Reivich, K., Jaycox, L., & Gillham, J. (2007). **The optimistic child**. Boston : Houghton Mifflin.
- Sheck, T. L. D.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1), 1-22.
- Shin, H. S. (2005). Mediating effect of coping in the relation of optimism and pessimism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165-192.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 Carver, C. S. (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26-31.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M., Ware, L., Danovsk, M., Highberger, L., Rubinstein, H., & Stahl, K. J.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 Song, A. R. (200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ild-rearing behavior upon early childhood mentality : centering on kinetic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Ey, S., Hadley, W., Allen, D. N., Palmer, S., Klosky, J., Deptula, D., Thomas, J., & Robert, C. (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548-558.
- Yu, S. K., & Bang, H. 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related stress and peer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2), 169-185.

Yoon, J. H. (2007). The effect of optimism on

depression and well-being : social support and coping as a medi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Korea.

---

2013년 2월 21일 투고, 2013년 5월 30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